

응급조치에 최적화된 '일진약품 구급함'

취재 · 사진 | 임동희 기자(safeeng@safety.or.kr)

일진약품은 응급구급함 및 구급장비 제작에 외길을 걸어온 회사로, 이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다. 인간 존중의 이념 아래 실용적이고 차별성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일진약품을 찾아가 봤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우리나라의 일반 가정도 그렇겠지만 산업현장에서 구급함은 등한시되기 십상이다. 어디에 뒀는지, 또 구급함 안에 어떠한 의약품이 갖춰져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속한 응급조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진약품은 이러한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사업장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구급함 만들기에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품마다 효율적인 진열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은 물론, 휴대성과 편리성, 여기에 외형까지 다양한 기능에 신경쓰면서 제품을 설계·제작해나가고 있다.

종류도 의약품, 반창고 및 일회용 밴드 등의 간단한 의약품을 넣을 수 있는 구급함부터 산소 및 인공소생기, 체온계 등 20여가지 의약품과 기구를 넣을 수 있는 응급구조기방까지 다양하다.

용도면에서도 산업용 구급함, 가정용 구급함, 차량용 구급함, 벽걸이형 구급함, 산업현장구급장비세트, 고주파구급팩, 구조장비가방, 응급장비 의약장, 규어라이프키트, 구급가방, 현대착용구급낭 등 다양한 반면 효과적인 응급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CPR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과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한 환자이송장치(들것), 산소호흡기 세트, 인공호흡 마스크 등 활용도에도 다양한 구조구급 장비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생명을 지킨다는 각오로 만든 제품

일진약품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장인정신'에 있다. 일진약품의 조길수 대표는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의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40여년간 의약업계에만 몸담아왔다. 의약산업의 발전을 온몸으로 느껴왔기에 우리나라 응급구급함 문화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간파하고 있었다.

그가 느낀 문제점은 구급함을 단순히 의약품 보관장소로만 생각하는 국민적인 인식에 있다. 제품도 실용성, 편의성 등은 배제된 채 철저히 공간활용성에만 치우쳐 생산됐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열악한 구급함 문화 속에 정말 구급함다운 구급함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직접 제작 및 보급에 나섰다. 단순한 제품생산이 아닌, '인간존중'의 이념아래 응급조치에 가장 최적화된 제품,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조 대표의 신념은 지금까지 모든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한 예로 이곳은 지금까지 개발됨을 따르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고객을 직접 만나 그들의 불만과 원하는 바를 들



조 현 규 부장

응급함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자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은 구급함 구입을 꺼립니다. 구급함을 구입해놨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아깝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응급함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만약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비용을 아끼워할 수 있겠습니까. 응급함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선진적인 응급문화가 우리나라에 하루빨리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빠야 혁신적인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이곳에서는 대표이사부터 경리직원, 물류직원까지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안전, 환경 우선하는 문화 조성에 힘쓸 것

일진약품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에 그치지 않고, 기본적인 응급조치법에 대해 기업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에도 나선다. 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1가구 1가정 구급함 설치 운동을 펼치며 열악한 우리나라의 응급문화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일진약품은 우리나라 구급함 분야의 선두이자 응급구조 문화의 중심에 서있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일진약품의 향후 계획은 환경문제에도 앞장서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환경오염의 계측을 위한 장비를 개발하는 등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국민과 근로자들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 환경을 지키려는 원대한 포부를 품은 일진약품. 이러한 포부가 가득 담긴 제품들이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인다면 우리나라 사회가 보다 안전해 질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일진약품의 응급구급 장비 BEST 3

1. 인명구조장비가방 일반형과 특대형이다. 응급조치를 위한 최적화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특대형에는 자가 호흡할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산소통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2. EMS가방이다. 소방서 구급대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다. 소방구급대원의 업무특성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3. AL벽걸이용 구급함이다. 선반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약품을 쉽게 꺼내고 수납할 수 있다. 특히 의약품 오염을 막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